

## 《黃帝內經 靈樞》를 통한 刺鍼 小考

강미숙\*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과



### [Abstract]

Review of the Key Aspects of Acupuncture(刺鍼之要) through Hwang-jenaegyong Youngchu

Mi Suk Kang\*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inform readers of the important aspects of about acupuncture and the process of Hwangjenaegyong Yongchu.

**Methods** : We researched the word 'acupuncture' through Hwangjenaegyong Youngchu. We formed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meanings of the key aspects of acupuncture in each sentence.

**Results** : In Hwangjenaegyong Youngchu, the meanings of the key aspects of acupuncture (刺鍼之要) are follows :

1. The key aspect of acupuncture(刺鍼之要) is to control Gi & Sin(調氣治神).
2. Before administering acupuncture, a doctor must know Meridian, acu-points, contraindication of nature, Bo-sa acupuncture(補瀉), Deug Gi(得氣), the role of the acupuncture needle(官鍼), the number of the needle, Gi & condition of patients, and pulse diagnosis.
3. For acupuncture, there are several things to be aware of : contraindication of acupuncture, deleteriousness of acupuncture, acu-points, and Bo-sa acupuncture(補瀉).

#### Key words :

Hwangjenaegyong  
 Youngchu;  
 The Key of Acupuncture;  
 Control Gi & sin

Received : 2016. 10. 14.  
 Revised : 2016. 12. 06.  
 Accepted : 2016. 12. 07.  
 On-line : 2016. 12. 20.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Gil Oriental Medicine Hospital of Gachon University, 117 Yong-dong, Jong-Gu, Incheon  
 Tel : +82-32-770-1342 E-mail : cyberdoc001@hanmail.net

## I. 서론

內經이론에는 침구변증과 치료에 음양이론이 투영되어 있으며 陰陽을 잘 판별하는 것이 刺鍼의 기초라고 하였다<sup>1)</sup>. 특히 靈樞는 針灸에 대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현대 침구학에 영향을 많이 끼친 서적으로<sup>2)</sup> 전체 81編의 논문 중 60編이 침구경락에 속하며 침구치료와 경락이론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sup>3)</sup>. 기존의 내경연구는 編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sup>4,5,6)</sup>. 본 연구에서는 편 위주가 아닌 靈樞 전반에서 저자가 用鍼之服, 凡刺之法, 用鍼之要, 用鍼之理, 用鍼之類, 凡刺之道 등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언급하고 있는 刺鍼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이를 통해 침을 시술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刺鍼은 진단과 변증을 통하여 치료로 구체화되는 한의학의 치료수단 중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자침의 process는 환자를 만나는 순간에서 진단과 변증을 통해 치료수단으로 결정되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침에 관한 중요한 point는 자침process의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자침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침에 관한 저자의 key point를 제시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임상에서 자침의 效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 II. 연구방법

동방침구제작소 <http://www.dbneedle.com>이 제공하고 있는 원문 자료실의 黃帝內經 靈樞에서 ‘鍼刺’ ‘刺鍼’ ‘用鍼’ ‘鍼之’ ‘凡刺’를 검색하여 본문이 속한 편을 찾아 注解補注 黃帝內經 靈樞<sup>7)</sup>의 原文으로 교정하였다. 검색된 문장 중에서 刺鍼의 중요성과 원칙을 기술한 服, 法, 要理類, 道를 포함한 문장인 동시에 자침 일반론에 관한 내용만을 선별하였다. 배제기준은 특정 질환이나 상황에 국한된 자침 내용이거나 구체적인 치료 내용 및 기술에 관한 내용의 문장이었다. 선별된 문장을 해석하여 원리, 숙지 사항, 금기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 분류하였다. 靈樞 原文과 解釋은 注解補注 黃帝內經 靈樞, 全本全注全釋叢書 黃帝內經<sup>8)</sup>을 위주로 하였고, 의역은 經典鍼灸學<sup>9)</sup>을 참고로 보충하였다.

## III. 본론 및 고찰

### 1. 刺鍼의 작용원리에 관한 내용

#### 1) 調氣

〈九鍼十二原〉 凡刺之道 氣調而止 補陰寫陽 音氣益彰 耳目聰明, 反此者 血氣不行 所謂氣至而有効者 ... 刺之而氣不至 無問其數 刺之而氣至 乃去之 勿復鍼 鍼各有所宜 各不同形 各任其所爲 刺之要 氣至而有効  
 〈根結〉 用鍼之要 在于知調陰與陽 調陰與陽 精氣乃光 合形與氣 使神內藏 故曰 上工平氣 中工亂脈 下工絕氣危生 故曰 下工不可不慎也

〈官能〉 用鍼之法 是故工之用鍼也 知氣之所在 而守其門戶 明於調氣 補寫所在 徐疾之意 所取之處 寫必用員 切而轉之 其氣乃行 疾而徐出 邪氣乃出 伸而迎之 搖大其穴 氣出乃疾

〈刺節眞邪〉 用鍼之類 在於調氣 氣積於胃 以通營衛 各行其道

#### 2) 治神 (守神)

〈九鍼十二原〉 小鍼之要 易陳而難入 謹守形 上守神 神乎神 客在門 未覩其疾 惡知其原 刺之微在速遲 謹守關 上守機

〈九鍼十二原〉 持鍼之道 堅者爲寶 正指直刺 無鍼左右 神在秋毫 屬意病者 審視血脈者 刺之無殆 方刺之時 必在懸陽 及與兩衛 神屬勿去 知病存亡

〈本神〉 凡刺之法 先必本于神 血脈營氣精神 此五藏之所藏也

〈官能〉 用鍼之要 無忘其神

### 2. 刺鍼 시 시술자가 알아야 할 사항

〈九鍼十二原〉 凡用鍼者 虛則實之 滿則泄之 宛陳則除之 邪勝則虛之

〈九鍼十二原〉 凡將用鍼 必先診脈 視氣之劇易 乃可以治也

〈本輸〉 凡刺之道 必通十二經絡之所終始 絡脈之所別處 五輸之所留 六府之所與合 四時之所出入 五藏之所留處 闕數之度 淺深之狀 高下所至

〈壽夭剛柔〉 黃帝問於少師曰 余聞人之生也 有剛有柔 有弱有強 有短有長, 有陰有陽 願聞其方 少師答曰 陰中有陰 陽中有陽 審知陰陽 刺之有方 得病所始 刺之

有理 謹度病端 與時相應  
 〈官鍼〉 凡刺之要 官鍼最妙 九鍼之宜 各有所爲 長短大小 各有所施也 不得其用 病弗能移...失鍼之宜 大者寫 小者不移 已言其過 請言其所施  
 〈官鍼〉 用鍼者 不知年之所加 氣之盛衰 虛實之所起 不可以爲工也  
 〈本神〉 用鍼者 察觀病人之態 以知精神魂魄之存亡得失之意 五者以傷 鍼不可以治之也  
 〈終始〉 凡刺之法 必察其形氣 形肉未脫 少氣而脈又躁 躁厥者 必爲繆刺之 散氣可收 聚氣可布 深居靜處 占神往來 閉戶塞牖 魂魄不散 專意一神 精氣之分 毋聞人聲 以收其精 必一其神 令志在鍼 淺而留之 微而浮之 以移其神 氣至乃休 男內女外 堅拒勿出 謹守勿內 是謂得氣  
 〈禁服〉 凡刺之理 經脈爲始 營其所行 知其度量 內刺五藏 外刺六府 審察衛氣 爲百病母 調諸虛實 虛實乃止 寫其血絡 血盡不殆矣  
 〈刺節眞邪〉 用鍼者...必先察其經絡之虛實 切而循之 按而彈之 視其應動者 乃後取之  
 〈官能〉 用鍼之服 必有法則 上視天光 下司八正 以辟奇邪 而觀百姓 審於虛實 無犯其邪 是得天之露 遇歲之虛 救而不勝 反受其殃  
 〈官能〉 用鍼之理 必知形氣之所在 左右上下 陰陽表裏 血氣多少 行之逆順 出入之合 謀伐有過 知解結 知補虛寫實 上下氣門 明通於四海 審其所在 寒熱淋露 以輸異處 審於調氣 明於經隧 左右肢絡 盡知其會 寒與熱爭 能合而調之 虛與實鄰 知決而通之 左右不調 把而行之

### 3. 刺鍼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邪氣臟腑〉 黃帝曰 刺之有道乎 歧伯答曰 刺此者 必中氣穴 無中肉節 中氣穴則鍼染于巷 中肉節即皮膚痛 補寫反則病益篤 中筋則筋緩 邪氣不出 與其眞相搏 亂而不去 反還內著 用鍼不審 以順爲逆也  
 〈官鍼〉 用鍼者 不知年之所加 氣之盛衰 虛實之所起 不可以爲工也  
 〈終始〉 凡刺之禁 凡刺之禁 新內勿刺 新刺勿內 已醉勿刺 已刺勿醉 新怒勿刺 已刺勿怒 新勞勿刺 已刺勿勞 已飽勿刺 已刺勿飽 已饑勿刺 已刺勿饑 已渴勿刺 已刺勿渴 大驚大恐 必定其氣 乃刺之 乘車來者 臥而休之 如食頃 乃刺之 出行來者 坐而休之 如行十里頃 乃刺之

〈寒熱〉 凡刺之害 中而不去則精泄 不中而去則致氣 精泄則病甚而恆 致氣則生爲癰疽也

黃帝內經은 침뜸치료의 이론과 임상 의 바탕이 되는 서적으로써 현재에도 그 가치가 높으며, 素問과 靈樞 가운데 靈樞는 鍼經이라고 불릴 만큼 침에 관한 기록이 월등히 많다.<sup>10)</sup> 영추에서는 用鍼之服, 凡刺之法, 用鍼之要 用鍼之理 用鍼之類, 凡刺之道... 등의 표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刺鍼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이나 刺鍼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거나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 많다. 內經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정리한 내경사전에서<sup>11)</sup> 要, 理, 法, 類 用, 服 등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要是 要領, 關鍵, 重要 등의 의미로, 道는 通道, 孔穴, 方法, 法則, 規律 등으로 사용되며, 法은 法則, 法規, 方法, 效法 등으로, 理는 治理, 紋理, 規律, 法則, 類는 種類, 同類, 類似 등으로 문맥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服은 內經에서 28차례 등장하는데 衣服, 事, 從事, 用, 使用, 降服, 服從, 吃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太素에서는 이를 學習, 楊上善과 馬蒔는 事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sup>8,9,11)</sup>

따라서 영추에 쓰이는 각각 용례를 유추해보면 用鍼之服은 침을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방법, 凡刺之法은 자침하는 원칙 및 법칙을, 用鍼之要是 침을 사용할 때 중요한 요점을, 用鍼之理는 침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리 및 법칙을, 用鍼之類는 침을 사용하는 따위의 행위와 유사한 종류, 동류에 관한 내용을, 凡刺之道는 刺鍼할 때의 법칙, 규칙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靈樞의 저자는 用鍼之服, 凡刺之法, 用鍼之要, 用鍼之理, 用鍼之類, 凡刺之道... 등의 표현을 통해 刺鍼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침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영추를 통해 언급된 자침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그 특성별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침의 작용 원리인 調氣와 治神이다. 이는 한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원칙인 調陰陽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인 동시에 침치료의 기본적인 치료개념이며, 자침이라는 작용이 치료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원리이다. 영추의 저자는 調氣와 治神에 대해 여러 편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調氣와 治神이 침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자침 시 시술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침 전 기본 지식, 자침

중의 수기나 보사 등의 방법론과 鍼具의 선택, 자침 후 得氣와 같은 치료와 관련된 사항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세 번째는 시술자가 자침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술하여 강조함으로써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刺鍼의 원리를 말한 것으로 자침이 궁극적으로는 調氣와 治神이라는 작용을 통해 치료 작용을 발하게 하는 행위라는 측면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다<sup>12)</sup>. 終始편에서는 凡刺之道, 畢于終始라 하여 '자침의 방법은 終始편에서 끝마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刺鍼에 관한 많은 규칙들을 제시해 두었으며, 여기서는 凡刺之道, 氣調而止라 하여 刺鍼 원칙 중 調氣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官能>에서는 工之用鍼也... 明於調氣, 補寫所在, 徐疾之意, 所取之處라 하여 의사가 자침할 때 調氣, 補瀉, 徐疾, 취할 곳 등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였고, <根結>에서는 用鍼之要, 在于知調陰與陽, 調陰與陽...라 하여 침을 사용하는 요점은 調陰陽이며 이는 곧 陰陽調和를 통해 氣를 화평케 하는 것이라 하였다. <刺節眞邪>에서 用鍼之類, 在於調氣, 氣積於胃, 以通營衛라 하여 침을 활용하는 요점은 調氣하는 것에 있으며, <刺節眞邪>에서도 반복적으로 用鍼之類, 在於調氣...라 하여 침을 활용하는 요점은 調氣라 하였다. <禁服>에서는 凡刺之理, 經脈爲始... 調諸虛實, 虛實乃止, 寫其血絡, 血盡不殆矣라 하여 자침의 이치는 經脈에서 시작하게 되며 그 虛實調節을 통해 온갖 병의 근원을 다스린다고 하여 經脈을 통한 調氣를 강조하고 있다.

治神은 守神, 治神의 의미로 이는 모두 질병치료 시 우선 情神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神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의사의 주의력을, 다른 하나는 환자의 정신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였다<sup>9)</sup>. 장경약도 환자는 神이 치료되어야만 氣血이 순행할 수 있으므로 침은 治神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여 神을 중요시하였다<sup>9)</sup>. <九鍼十二原>에서 鑿守形, 上守神... 刺之微在速遲, 鑿守關, 上守機라는 표현은 <本神>에서도 반복하여 언급되는데 守關, 守形, 守神 守機이 있으며 이들 중 '守神'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여 神이 자침의 원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9)</sup>. <九鍼十二原> ... 神在秋毫, 屬意病者 審視血脈者, 刺之無殆... 神氣는 秋毫에 달려 있으므로 뜻은 病者에게 집중하고 血脈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정신집중을 말하는 것으로 <本神>에서도 凡刺之法, 先必本于神이라 하여 자침을 할 때는 반드시 神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여 또한 神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官能>에서 말하는 用鍼之要, 無忘其神 역시 침을 활용하는 요체는 神氣를 잊지 않는 것이라 하여 治神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馬蒔는 여기서 말하는 神氣는 血

氣라고 하였다<sup>9)</sup>. 이를 통해서 자침의 원리는 調氣와 治神이라는 두 방향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침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두 번째, 자침시술자가 자침을 할 때 고려하고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침 전, 자침하는 과정 중, 자침 후의 상황에서 침을 시술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원칙과 도구, 방법론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적재적소에 잘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九鍼十二原>에서는 凡用鍼者, 虛則實之, 滿則泄之, 宛陳則除之, 邪勝則虛之라 하여 침을 운용할 때 알아야 할 자침의 원칙을 말하였다. <刺節眞邪>에서는 用鍼者... 必先察其經絡之虛實 切而循之... 乃後取之而下之라 하여 자침 시에 經絡의 虛實을 알아야 하며, 자침을 하는 시술자는 經絡의 虛實을 인지한 후 반드시 診脈을 시행하고 刺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凡將用鍼, 必先診脈..라 하여 자침 전에는 반드시 먼저 診脈을 통하여 氣의 輕重을 살필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四診 중 자침을 하는 사람이라면 脈診은 반드시 행하여야 할 진단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氣의 盛衰虛實을 아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배<sup>13)</sup> 등은 황제내경에서의 得氣는 脈診의 한 과정이며 刺鍼 前뿐만 아니라 자침 後에도 맥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禁服>에서는 凡刺之理, 經脈爲始 營其所行... 內次五藏, 外別六府라 하여 刺鍼의 이치가 經脈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하여 血氣의 盈虧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壽夭剛柔>에서는 得病所始, 刺之有理 謹度病端...라 하여 병이 비롯된 바를 알아야 刺鍼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고 하여 병의 단서를 신중하게 헤아려야 함을 말하고 있다. <本神>에서는 用鍼者, 察觀病人之態... 刺鍼 시에는 病人의 상태를 먼저 관찰하여야 할 것을 말하였고, <終始>에서도 凡刺之法, 必察其形氣. 形肉未脫... 以移其神 氣至乃休.. 자침할 때는 반드시 病人의 形氣를 살펴야 하는데 이와 함께 得氣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刺之要 氣至而有効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자침 후 氣至, 즉 得氣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終始>에서 언급한 凡刺之道, 氣調而止, 補陰瀉陽... 所謂氣至而有効者...라 하여 調氣와 氣至를 통한 자침의 효과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官能>에서 用鍼之理, 必知形氣之所在, 左右上下, 陰陽表裏, 血氣多少... 刺道畢矣라 하여, 刺鍼 시에 形氣의 所在, 左右上下, 陰陽表裏, 血氣多少, 循行의 逆順, 出入하는 회합처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張志聰은 이를 形中之陰陽, 血氣라 보았으며, 太素에서는 形之所在는 肥瘦, 氣之所在는 虛實을 말하는 것이라 하여<sup>9)</sup> 刺鍼 전에 환자의 肥瘦와 血氣의 虛實을 살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刺鍼이 調氣를 통한 치료목적의 달성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자침 시 환자 개개인의 氣의 盛衰虛實을 알아야 하며 이는 診脈을 통해 명확한 정보를 얻어 보다 유효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官鍼>에서는 凡刺之要, 官鍼最妙 九鍼之宜, 各有所爲...라 하여 官鍼은 자침을 시행할 때 病邪의 종류와 자침 부위에 따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이는 九鍼을 통해 病所와 질병에 알맞는 鍼具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刺鍼 시 鍼의 개수 역시 자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本輸>에서는 凡刺之道, 必通十二經絡之所終始, 絡脈之所別處...라 하여 刺鍼 시 十二經의 終始와 絡脈의 나뉘는 곳, 五輸穴의 머무는 곳, 六腑의 絡脈이 습하는 곳, 四時의 出入, 五臟의 溜處에 반드시 통달해야 한다고 하여 經絡, 輸穴, 四時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였다. <官能>에서는 用鍼之法(服) 必有法則...上視天光 下司八正 以辟奇邪라 하여 鍼을 활용할 때는 위로는 日月星辰과 아래로는 八正을 관찰하고...虛實을 자세히 살펴 그 邪氣를 범하지 말고 天忌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日氣에 따른 氣血의 변화를 참고하여 자침에 임하는 것은 考慮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는 刺鍼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邪氣臟腑>에서는 刺鍼을 할 때 氣穴에 자침하되 肉節에 자침하지 말 것, 補瀉를 반대로 하지 말 것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終始>에서는 十二禁刺로 널리 알려진 刺之禁을, <寒熱>에서는 凡刺之害...精泄則病甚而恆, 致氣則生爲癰疽也: '刺鍼 시 氣穴에 적중했으나 拔針하지 않으면 精氣가 누설되고 氣穴에 적중하지 않았으나 拔針하면...癰瘍症을 생기게 한다' 라 하여 中而不去, 不中而去로 인한 자침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邪氣藏府病形>에서 刺此者, 必中氣穴, 無中肉節...補瀉反則病益篤 中筋則筋緩, 邪氣不出, 與其真相搏, 亂而不去, 反還內著. 用鍼不審, 以順爲逆也라고 한 것은 刺鍼할 때 반드시 氣穴에 적중해야 하고, 肌肉이나 肉節에 자침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補瀉를 반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자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靈樞에서 말하는 用鍼之服, 凡刺之法, 用鍼之要 用鍼之理 用鍼之類, 凡刺之道...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으로 자침의 작용원리인 調氣와 治神의 중요성, 자침 전 시술자가 숙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 자침 시 주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추의 저자는 要, 理, 法, 類 用, 服 등의 표현을 통해 자침에 관한 사항

을 靈樞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의학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반면 그 긴 역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승되지 못하거나 관심 밖에서 사라지는 등 negative한 변화를 겪었다. 그 중 특히 침구학의 자침과 관련해서는 脈診과 九鍼(官鍼)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脈診의 경우는 黃帝內經시대로부터 오랫동안 刺鍼 前後에 필수적으로 행해졌던 진단과 동시에 치료효과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행위였지만<sup>43)</sup>, 현재는 한의학 임상에서 그 활용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의학의 역사를 볼 때 그 긴 역사만큼이나 현 시대와 다소 상이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나 질병의 다양한 변화, 기타 여러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이다. 일부는 이렇게 쇠퇴의 과정에 있는 한의학의 한 이론으로 그 영역을 보다 확장시켜 다른 이름의 침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름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저자의 관점에 기반한 분류라는 형식적인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적인 한계를 차치하고서라도 고전이라는 기반을 통해 비록 쇠퇴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사항들은 여전히 다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鍼經이라고 일컬어지는 靈樞의 저자가 刺鍼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현재의 우리가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검증과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한의학의 지경이 보다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IV. 결론

靈樞에서 언급된 刺鍼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는 刺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인 동시에 刺鍼이라는 치료기술을 이루는 여러 요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針灸學의 자침을 이해하고 학습한다면 刺鍼의 효과를 이루는데 萬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刺鍼이란 調氣와 治神을 원칙으로 하는 치료법이다.
2. 刺鍼 시술 시에는 經絡과 그 虛實, 輸穴, 天忌, 刺鍼 補瀉의 원칙, 得氣와 刺鍼 前 診脈. 官鍼과 九鍼, 刺鍼 개수, 病人의 상태와 그 形氣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3. 刺鍼 시 주의할 사항은 氣穴에 刺할 것, 補瀉를 바르게 할 것과 刺鍼之禁, 刺鍼之害 등을 알아야 한다.

## V. References

1. Lee JD, Kim NI. The history of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Seoul : Iljung Co. 1997 : 74-5.
2. Lee YB. Bibliographical Research on the Young Chu(靈樞). J. Korean Medical Classics. 1999 ; 12(2) : 267-80.
3. Lee EJ, Lee JY, Shin IS, Kim HY, Lee BH. A Study on the Young Chu(靈樞) of the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s. 2011 ; 36(4) : 191-6.
4. Kang MS. Review on Hyolmaek through Hwangjenaegyong Youngchu. The Acupunct. 2010 ; 27(6) : 111-4.
5. Yoon JH, Sin KS, Jang JH. A study on diagnosis method by chonguinyoung pulse(寸口人迎脈診) based on <Youngchu · Kyoungmaek>. The Acupunct. 2002 ; 19(1) : 203-9.
6. Lee JH, Joeng HY, Ghon SM, Kim YH, Park K. A study on the Oh La(五亂) of the Young chu. J. Korean Medical Classics. 2000 ; 13(2) : 148-54.
7. Kim DH, Kim JH. Hwangjenaegyong Youngchu. Seoul : Euseongdang. 2002.
8. Yao CP. Hwangjenaegyong Youngchu. Beijing : China publishing Co. 2012 : 1372.
9. Kang SB. Scripture Acupuncture. Seoul : Iljung Co. 2005.
10. Kao XZ, Jiang S. Practical dictionary of Acupuncture & Moxibustion. Jiang su : science technology publishing co. 1999 : 353.
11. Zhang DB, Woo CC. Neijing cidian. sanhe : Renmin weisheng publishing Co. 2000.
12. A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Acupuncture Medicine. Gyeonggi : Hanmi. 2014 : 15-6.
13. Bae SC, Shin SH, Kim KW. Pulse diagnosis procedure before and after the acupuncture in Hwangjenaekyung.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1 ; 24(3) : 15-25.